



익산시,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지회장 류창현)는 지난 12일 익산 실내체육관(관봉동)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최종오 익산시의회의장, 익산시의회의원, 관내 기관단체장과 어르신 1,500여명을 모시고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흥겨운 풍물놀이로 시작으로 초대가 수와 품바 공연, 기념품 추첨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와 함께 노인 복지기자재 및 단체의 표창수여가 이뤄졌다.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합의를 최성규 어르신 등 10여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시상장 수상을 했다. 국회의원상에는 박승규 어르신 등 20여명이 익산결찰서장 감시장에는 중앙동 철우경로당 손주열 등 2명이, 대한노인회회장 및 모범경로당상에는 춘포면 강재훈 어르신 등 13명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경로효친은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통사상이 시대가 변화며 빠르게 퇴색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우리는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와 공경심을 고양(高揚)하고 점점 낮아지는 노인인식과 효행문화를 제고(提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비전대, 창의적 교수법 특강 실시

전주비전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교수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적 교수법 특강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하이브리드 교수법을 적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 전주비전대 교수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특강에서 우석대학교 박덕진 교수는 더 좋은 수업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과 교수법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수업의 질 개선 및 교수역량 향상에 집중했다. 운영한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수업 설계에서 평가까지 교육공학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경험과 방법을 제시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세계에서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미국 워싱턴 정우회, 전라북도 청소년 대상 장학금 수여식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센터장 이영호)는 미국 워싱턴 DC 거주 교민단체 정우회(고문 이현곤)와 13일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회의실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워싱턴 정우회 이현곤 고문·참석하여 전라북도의 5명 초·중·고생에게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워싱턴 정우회는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전북 출신 교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봉사활동, 청소년 장학금 사업 등을 운영하며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아울러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모의유엔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을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이번 워싱턴 정우회 장학금 전달식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우수한 청소년들을 만나뵙게되어 대단히 기쁘며, 고향 청소년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정우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수혜 학생들이 세계 사회에서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진안군 용담호수질개선허, 유입하천 정화활동

진안군 용담호수질개선허 진안군주민협의회와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회원 등 50여명이 전북도민의 생명수이자 전북발전의 젖줄인 용담호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13일 진안읍 진안천에서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날 이들은 전북인삼조합앞 하천부터 진안군교육지원청 앞 하천까지 약 2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태풍으로 발생한 부유물 및 쓰레기 1.8톤을 수거했다. 150만 전북도민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용담호의 상류지역인 진안천은 진안군의 인구의 40%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용담호수질개선허 주민협의회와 광역상수원 지킴이 회원들은 용담호 1급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유입되는 오염원 사전 차단에 위해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정길 용담호 주민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주민홍보 활동 및 꾸준한 정화활동을 통해 용담호 수질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치즈축제장서 집중 홍보

임실군이 지난 7일부터 10까지 개최된 2022년 임실치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군은 축제장 홍보부스에서 리플릿, 배너, 답례품 등을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 및 읍면에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집중 홍보했다. 또한, 8일에는 심민 임실군수,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 이진산 농협 임실군지부장, 지역농축협 조합장 등이 모여 홍보부스 앞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진행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기초, 광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2023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건전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져 지역 활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죽향동 자치사랑방 민요교실팀, 강도근 판소리 경연 대상

남원시 죽향동(동장 허인선)은 동자치 사랑방 민요교실팀(양혜자 외 8명, 강사: 강금화)이 흥부제 기간에 개최된 제30회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뒤늦게 밝혔다. 죽향동 민요교실은 지난 6월 7일 첫 개강해 민요 판소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1회 강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2020년 이후부터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으로 3년 만에 첫 출전한 대회에서 수강생들은 한 달전부터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따로 시간을 내어 부단히 판소리 연습을 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한편 허인선 동장은 “동 자치사랑방 민요교실팀과 오

진혜 어르신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한 예절”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농협 전북본부, 친환경 녹색공간 ‘NH초록세상 제2호’ 조성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가 13일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으뜸지역아동센터를 찾아 NH초록세상 제2호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유혜영 세이브체일드런 서부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지역아동센터에 스칸디아모스로 만든 식물벽(Plant Wall)을 전달했다. NH초록세상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한 청소년 교육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BSG 사회공헌활동으로 가슴 및 제습 기능이 뛰어난 천연 이끼식물벽을 조성해 미세먼지 감소 및 실내 인테리어 효과 등 아동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경민 본부장은 “이번에 조성된 친환경 녹색공간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푸른 꿈을 펼쳐나



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BSG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창간

남원시 발전과 코로나19 방역 및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임실·순창 국회의원 이용호	남원시정 시장 최경식	남원시의회 의장 전평기	농협 남원시지부 지부장 권오정	남원 축협 조합장 강병무
남원 농협 조합장 박기열	남원 경찰서 서장 김진형	남원 병원 원장 신재훈 김학경 박종관	남원 이엔씨 대표 권찬열	

사진: 남원예촌 전통한옥